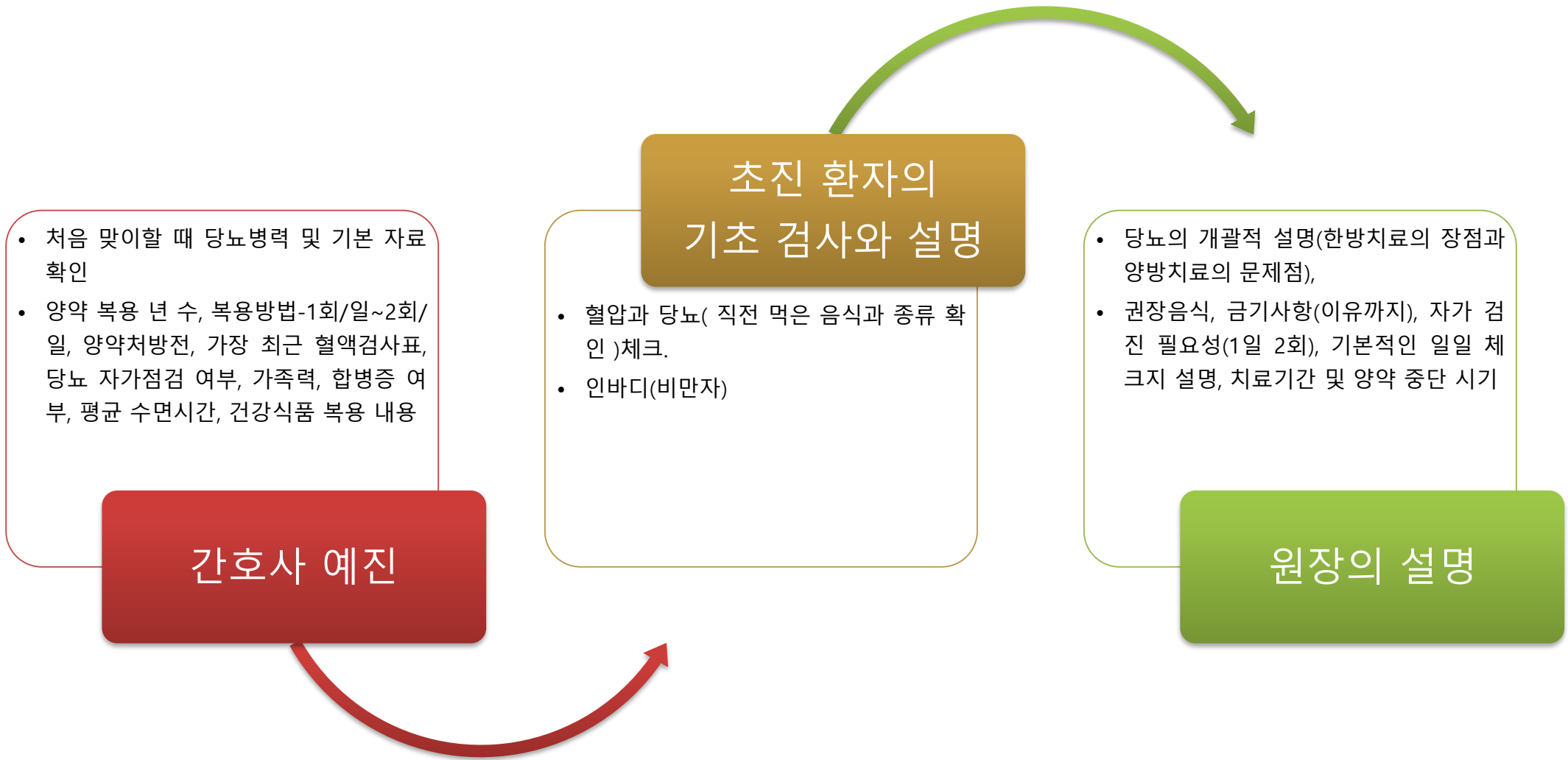




“당뇨병” 치료

당뇨병 치료를 위한 기본



당뇨병의 치료

당뇨병 치료의 6대 원칙

- 1 당뇨는 치료되는 병이고 한의사가 제격이다.
- 2 당뇨는 본인이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 3 당뇨를 치료할 때 양약을 최대한 빨리 중단토록 공격적인 치료를 한다.
- 4 치료를 위한 한약의 용량은 유연하고 과감하게 결정한다.
- 5 달고 기름진 음식은 독이고 쓰고 신 음식은 약이다.
- 6 잘 자고 잘 웃고 부지런하게 살고 경쟁심과 욕심을 버려라.

당뇨 치료 매뉴얼

1) **내원 주기 설정** : 기본이 주 단위 점검, 회복 정도에 따라 2주, 한 달로 점차 확대.

2) **환자의 일일기록표 점검** : 막대그래프로 표시, 특히 반응 음식 및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한약 투여 용량의 변동, 혈압과 전반적인 신체 상태 점검.

3) **침 치료** : 배수혈의 선택 + 침법 활용.

4) **나노약침의 투여** : 배수혈 선택, 1혈당 0.20~0.25cc 자입. 최대 11혈 취혈.(폐수,심수,간수,비수,삼초수좌혈,신수)

5) **뜸** : 중완, 관원, 기해 혈당 3개씩 대구(大灸) 주 1~2회

당뇨병 처방 약

당이정+ :

췌장 β 세포 기능 회복 목적 - 인슐린 분비 기능 회복 및 강화

처방구성 - 전충, 구인, 삼칠근, 계혈등, 진주초, 나도순, 선학초, 구기자, 창출, 산약, 백작약, 홍화자, 지실, 감초, 모려, 백강잠, 용골 외

당이정 :

인슐린 저항성의 치료 목적, 혈관의 청소 및 장부 기능 회복(간, 심, 신)

오삼환 :

거습, 거어혈, 청혈, 거담의 기능으로 인슐린 수용체 기능 회복 목적.

처방 구성 - 단삼, 사삼, 현삼, 연삼, 고삼, 소태, 황련, 육계, 건강 외 4종

이온한약 :

인체에 전자를 보충하여 신체 장부와 세포의 장벽 복원 및 재생. 보기.

기타 처방 :

스트레스를 다스리거나 불면증을 다스리는 약이 보조제로 필요함.

당뇨 치료에 주의할 사항

1

당뇨와 운동 : 운동은 식후 30분 후에 1시간 ~1시간 20분 정도 한다.
(1일 1~2회 매일 꾸준히 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엔 스트레칭이나 국민체조를 습관처럼 하고 스텝 바를 활용한다.)

2

당뇨와 식이요법 : 금기음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쓰고 신 음식을 자주 섭취해라.
권장음식을 적극적으로 먹도록 하는데 식전 스프 역할의 귀리죽, 계란탕, 채소주스를 먹어라. 두부와 땅콩 및 감자, 고구마를 조심한다.

3

당뇨와 수면 : 11시 경에 수면 시작과 6시 경의 기상 패턴을 갖게 한다. (불면증이나 수면부족은 당뇨의 최대 적이다.)

4

당뇨와 스트레스 : 과중한 스트레스를 정리토록 하며 마음의 안정을 위해 개인적인 방법 모색.

5

당뇨와 술 : 과음의 피하도록 하며 개인별로 반응하는 술의 종류가 다르기에 영향을 미치는 술을 찾도록 해서 피하도록 관리.

6

당뇨와 과일 : 말린 과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금기이고 대부분의 과일을 피하고 채소로 대체토록 유도한다.

7

당뇨와 화학제품 : 모든 종류의 화학제품을 피하도록 한다. 식품 첨가물, 인스턴트, 조미료, 화학물질 흡입, 농약.

8

당뇨와 밥 : 당뇨병에 좋다는 보리쌀, 현미 등은 권장하지 않는다. 일반 쌀밥을 먹어도 된다.
단, 일반 쌀에 차좁쌀을 30% 넣어서 먹으면 가장 좋다.

당뇨한약 투약 방법

당뇨약(양약)을 줄이는 법	당뇨약(한약)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최초 투약 시)	당뇨약(한약)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투약 중, 감량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약을 줄일 때는 처음에 한약을 함께 복용시키고 급격하게 혈당이 떨어지면 나중에 추가된 당뇨약을 제외한다. 모르는 경우엔 양약은 주약과 보조약으로 구성되는데 보조약을 먼저 중단한다. 2) 보조약을 빼도 안정되면 과감히 주약을 중단한다. 일주일은 주의 깊게 관리토록 권유한다. 3) 만일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면 주약의 1/2 정도를 다시 복용토록 하고 안정되면 주약의 1/4 정도로 줄이다가 이후 완전히 중단토록 한다. 4) 당뇨약을 완전히 중단한 후 그 외의 약을 중단하는데 혈압약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 당뇨 수치가 아침 공복 기준 160 ~ 180 이하면(당화혈색소 7.5) 당이정+를 기준으로 5개/1일3회로 시작한다. 단, 양약의 당뇨약은 점진적으로 줄인다. 3),4),5)도 동일하다. 2) 양약을 복용하면서 수치가 안정되어 있으면 (아침 공복 130~150 이하, 당화혈색소 7.0) 하루 1회 당뇨약을 복용하고 당뇨약이 1가지 이면 5개/1일3회를 처방하면서 곧바로 당뇨약을 중단한다. 3) 만약 양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2)의 경우는 초기 당뇨병으로 2~3개/1일3회를 처방하는데 저혈당의 기운이 있으면 1개씩 빼고 복용한다. 4) 최초 당뇨 수치가 200 ~ 250 이하로 (당화혈색소 7.8 ~ 8.5) 나타나면 8개/1일3회로 시작한다. 5) 당뇨의 수치가 250 ~ 300이상 (당화혈색소 10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이면 10개/1일3회로 시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이정+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는데 저혈당이 나오는 경우에는 1~2개 씩 빼고 복용토록 하되 150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에는 뺀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리토록 하는데 1주일 이상 안 떨어지면 1개를 다시 증량토록 한다. 2) 최초의 투약으로도 전혀 반응이 없거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당뇨의 원인이 되는 인자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철저히 문진과 일일점검표를 분석하여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대표적 원인은 수면장애, 극심한 스트레스, 화학제품에 노출이다. 특이한 경우 암이나 갑상선 이상인 경우도 있다. 3) 양약을 모두 중단한 상태에서 당뇨 수치가 안정되면 1주일 단위로 당이정+를 1~2개씩 줄여 나간다. 만약 1개인 경우는 당이정+를 완전히 빼고 당이정(1.5~2g/1일3회)과 오삼환(20~30환)을 처방하도록 한다. 4) 당이정+를 중단하고 당이정과 오삼환 만으로도 안정이 되었다면 모든 약을 중단하되 일일 기록지는 2개월간 더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침과 약침은 동일하게 시술한다.

당뇨치료의 3가지 기본상식

저혈당	당뇨 치료의 문제점	1형 당뇨와 인슐린 펌프 부착자의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뇨 환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사항은 합병증과 저혈당 쇼크이다. 저혈당 쇼크는 환자들마다 나타나는 수치가 다르다. 어떤 경우에 100정도에도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신체의 면역 반응과 저항력 그리고 혈당에 대한 신체 반응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초기에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하게 혈당이 낮아지는 대도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위의 상황과 반대로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급속하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뇨의 치료 실패 이유는 스스로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관리와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직업의 특성 상 야간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그러하다. 더불어 작업환경이 화학제품을 다루거나 열악한 환경에 지속적인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 치료가 힘들다. 또한 처음에는 잘 지키다가 좋아지면 생활이 문란해지는 경우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당뇨 치료 시 비용은 한 달을 기준으로 40만원을 책정하되 초기에 심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추 후 약 량이 줄면 할인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을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책정하면 된다. 단, 사전에 이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다. 치료 기간은 약한 경우에 3개월을 우선 책정하고 중간의 경우에는 5~6개월을 아주 심한 경우에는 9~10개월을 잡고 치료하면 된다. 단, 투약 기간이 지난 후 관찰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사람은 인슐린 조절 기관인 췌장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단지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투약하면 아주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다. 합병증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더 욕심내면 실패하고 만다.